

롯데마트 상무·월드컵점 '자리 장사' 말성

시민 휴식공간 허가 안받고 임대

아웃도어판매전 유치 수수료 챙겨

광주지역 롯데마트 일부 점들이 시민을 위한 공간을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외부행사를 유치해 임대료 주고 수수료를 챙겨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광주지역 롯데마트에 따르면 상무점과 월드컵점 입구에 대형 텐트를 설치해 지난 20일부터 아웃도어 상품 기획판매전을 열고 행사를 진행

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의 규모가 크고, 마트의 길목을 점령하는 바람에 마트나 행사장을 이용하는 고객과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었다.

하지만 이 보다 더 큰 문제는 행사장이 설치된 곳이 이른바 '공개공지'로 시민을 위한 공간이라는 점. 공개공지는 건축법상 전체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면적의 5~10%를

시민의 휴식공간 등으로 활용하도록 공개공지를 두도록 해 규제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번 아웃도어 상품 기획 판매전을 진행하면서 이들 공간을 의무 판매상에 수익금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임대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 휴식공간 등으로 쓰여야 하는 공개공지에서는 연 60일 이내에 구청의 허가를 받아 판매행위나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롯데마트는 이들 시설을 임대하면서 해당 구청에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가건축물에 해당하는 텐트를 설치할 때에는 구청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무시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인근 상인들은 모범을 보여야할 대기업이 노점상 영업을 적극적으로 도와 지역 상권을 위축시키고 있고, 임대료까지 받으며 수익을 올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은 또 관할 구청이 10일이나 되도록 대형마트의 불법적인 영업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대형마트 바꾸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 광주 서구청은 현장을

찾아 롯데마트 측의 위반 여부를 확인했으며, 시정명령 등 행정절차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제가 되자 롯데마트 측은 29일 외부행사 영업을 중단하고 행사장 철거작업에 나섰다.

롯데마트의 한 관계자는 "임대 개념은 아니고 행사를 위주로 하는 업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해 수수료를 받고 영업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애초 행사 기간을 10일일로 했기 때문에 영업을 접고, 시설물을 모두 철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 어린이날 그림대회 시상식



KJB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29일 광주은행 본점 3층 대회의실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최한 '제12회 어린이날 그림대회'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사진)을 가졌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현서 세운그림 유치원 원생과 김유빈(광주운암초

2), 노유환(하남중앙초 5) 어린이 등 수상자 4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수상 작품은 내달 5일까지 광주은행 본점 1층 로비에 전시되며, 광주은행 홈페이지(www.kjbank.com)에서도 만나 볼 수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 백화점 업계 NC 돌풍 부나



'공격적 마케팅' 내달 1일 개점 현대백화점 자리 간판 바꿔 영업

남성성장, 6층 골프·유니캐주얼, 7층 아동·스포츠·아웃도어, 8층 가정용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하 1층 식품관은 직매입 전문 프리미엄 식품매장으로 운영된다.

NC백화점 광주점은 고객들에게 제공했던 기존 혜택은 당분간 변함 없이 그대로 이어갈 방침이다. 신한 카드 제휴 5% 할인 서비스와 카드사 적립 포인트제도, 계열사·제휴사 특별할인 혜택 등 그동안 현대백화점에서 제공된 모든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한다.

미처 사용하지 못한 현대백화점 상품권은 기존에 사용해왔던 방식 그대로 NC백화점 광주점에서 올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에 운영되던 기아자동차 임·직원 회원과 20여개 제휴사 그룹에 대한 서비스는 동일하게 특별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으며 VIP등급인

자스민, 플래티늄 고객 역시 라운지 운영, 발렛서비스 제공과 10% 특별할인혜택, 무료 음료서비스 제공 등 그동안 진행된 우수 고객 서비스도 이어갈 예정이다.

이랜드리테일은 이번 NC백화점 개장과 함께 내달 28일 광주 최대 상권 중 하나인 충장로 옛 밀리오레에 20~30대를 겨냥한 쇼핑몰 'NC웨이브'를 오픈할 예정이어서 'NC 발(發) 바람몰이'에 지역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NC웨이브는 20~30대 고객 층을 타겟으로 1~2층 패션 매장의 80%를 SPA 브랜드와 편집샵, 메가샵으로 구성하고 1~2주 단위로 콘텐츠를 교체하는 팝업 스토어를 선보이는 등 기존 유통 채널과는 차별화된 새로운 쇼핑 공간으로 구성해 선보일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출의 계절... 발관리 인기

29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잡화매장에서 한 고객이 발 각질 제거 제품을 체험해 보고 있다.

노출의 계절을 맞아 발 관리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돼지고기 가격 회복세

석달만에 35.6% 올라

폭락을 거듭해온 돼지고기 가격이 회복세로 돌아섰다. 29일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도축된 암태지의 평균 경매가격은 1kg당 3730원이었다.

이는 올해 가장 낮은 경매가를 기록한 지난 2월13일 2749원과 비교해

35.6% 증가한 수준이다.

한달전인 지난달 29일 kg당 경매가 3672원보다는 9.8% 올랐다.

소매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집계한 삼겹살의 전국 평균 소매가는 전날 기준 100g당 1610원이다. 일주일 전(1515원)보다 6.2% 뛰었다.

지난 2월13일 소매가 평균인 100g

당 1424원에 비하면 13.0% 상승했다. 다만 지난해 수준인 100g당 1천 800원대는 미치지 못했다.

28일 현재 대형마트 기준 이마트에서 삼겹살은 100g당 1680원, 목살은 같은 단위에 1960원에 팔리고 있다. 이달초만 해도 돼지고기 소비촉진 차원에서 삼겹살과 목살은 모두 100g당 1280원에 사실상 할값에 판매했다.

롯데마트의 경우 이날부터 일주일간 삼겹살과 살 할인 행사를 진행하지만, 시세보다 20% 낮은 가격이 100g당 각 1450원이다.

/연합뉴스

청년취업 지원대상 만 29세서 34세로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30대 초반 미취업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취업 지원대상을 만 29세에서 34세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대상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글로벌 취업지원, 직장체력, 직업체력 등 8개 사업이 있다.

이중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는 정부가 인턴 근무 6개월간 임금의 50%(8만원 한도)를 부담하고 직장체력 프로그램은 월 40만원을 지원해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3개월 이내 기간동안 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아울러 만 35~39세의 미취업자에 대해서도 지방관서장 또는 사업시행 기관장이 취업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는 6월부터 시작할 예정인 스포츠월 채용시스템 멘토스를 참여대상 연령도 만 34세로 늘릴 계획이다.

각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30대 초반 미취업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거나 월드잡 홈페이지(www.worldjob.or.k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연합뉴스

국세청, 페이퍼컴퍼니 기업인 23명 세무조사

관세청도 12명 역외탈세 조사

국세청은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세우고 세금을 탈루한 역외탈세 혐의자 2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이날까지 역외탈세 사례 83건을 조사해 모두 4천798억원을 추징했으며 이와는 별도로 45건의 역외탈세 사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날 수송동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역외탈세 조사 현황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해외 거래처가 주는 무역 중개 수수료를 해외에 개설한 스위스 비밀 계좌로 몰래 받은 뒤 신고하지 않거나 버진아일랜드의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고 투자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포함됐다.

또 해외 수입 거래를 국내에서 수행하면서도 홍콩 페이퍼컴퍼니가 하는 것처럼 위장해 수익을 해외로 이전하고, 수익 가운데 일부는 사주의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은닉한 경우도 있었다.

한편 관세청도 최근 뉴스타파가 발표한 자료를 토대로 기업인 12명의 탈세 가능성에 대해 정밀 분석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전기안전 긴급출동 - 스피드콜
1588-7500

KEPCO 와 함께하면

전기안전 참수입다!

매월 4일

생활 속 전기안전 점검, 이렇게 하면 참 쉽다!

- 1 누전차단기는 월 1회 이상 점검
- 2 전선이나 차단기는 적정 용량에 맞게 사용
- 3 낡은 전기시설은 즉시 교체
- 4 비올 때 가로등, 신호등 옥외광고물 근처에 접근 금지
- 5 건설공사 및 이삿짐을 옮길 때에는 고압선에 닿지 않도록 주의

전기안전 블로그 | NAVER blog.naver.com/kescomiri

전기안전 선도기업, 행복한 고객, 신명나는 일터

KEPCO 한국전기안전공사
KOREA ELECTRICAL SAFETY CORPORATION
www.kesco.or.kr